

쏟아지는 복지정책... 전쟁 치르는 복지담당 공무원들

“업무 파악 커녕 상담 전화도 못받아”

“정부 부처에서 쏟아내는 각종 복지 정책에 관한 업무 파악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한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이 “현재 인력으로는 빈곤층과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는 연감생심”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각 부처 복지정책이 소수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몰리는 이른바 ‘갈데기형’ 업무 구조로는 명실상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복지담당 업무가 대표적인 3D업무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와 전남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맡는 업무는 줄잡아 30여건에 달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보육료 지원사업, 기초 노령연금 지급,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 사업, 한 부모 가정 지원대상자 관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청을 비롯해 5개 구청에 근무하는 274명의 공무원으로는 신빈곤층 등을 발굴하는 것은 차치하고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급여계시를 위한 행정절차 처리 등 기존 업무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게 일선 직원들의

“업무에 치여 찾아가는 서비스 꿈도 못꾸”

검증 기능 없는 관리 시스템 횡령 불러

하소연이다. 소규모 동사무소에서는 1~2명의 공무원들이 1천여 명에 달하는 복지 수혜대상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다.

광주시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가 14만5천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관리인원은 529명에 달한다. 전남도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복지 수혜인원이 51만5천 800명이지만, 담당 공무원은 930명에 그치고 있다.

광주 북구청에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인력은 그대로인데 복지서비스는 날로 늘어나고 있어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요즘에는 복지 업무에 관한 민원인들의 상담전화를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12일 정부가 ▲실직·휴폐업 등 저소득층 120만 가구 지원 ▲무로급식단체 정부양곡 무상 제공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저소득층

독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새로운 복지 정책을 발표하자 일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업무부담 증가와 복지 업무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쏟아지는 정책과 부족한 인력은 결국 실적 위주 사회복지, 기존·신규 업무추진 차질, 관리 미흡 등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은 “경기 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조건 찬성한다”며 “그러나 복지 행정업무 처리도 힘든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빈곤가정을 발굴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복지 수요층을 관리하고 돕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또 정부의 복지지원금이 1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한정돼 있고, 보조금 관리 시스템조차 허술하다 보니 보조금 횡령, 유용 사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무원들의 잦은 보직변경 등 인사 이동도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은 달라도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지원, 취업알선 등 과생업자들이 서로 맞물려 있어 인사나 보직 이동이 업무과약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게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광주시청의 한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 업무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며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인사 이동은 결국 사회복지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도민과의 대화’ 끝내

인구 감소 전남 발전 걸림돌 기업·도시민 유치 힘 모으자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부터 나주·화순을 시작으로 전남 22개 일선 시·군을 직접 찾아가며 시작한 ‘도민과의 대화’가 12일 목포시와 신안군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남 발전의 방향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펼쳐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 지사는 이 기간 동안 인구 감소가 전남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기업유치와 지

역별 특산자원 산업화, 도시민 유치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도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215건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 이를 점검하고 건의자에게 서면으로 추진상황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곡성군 입면 지방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을 비롯한 ▲장성군 진원면 일대 배수 개선 ▲완도를 하수도 정비 ▲진도 청유항 지원 요청 등 4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출장조사 후 즉각 조치하도록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 4일 순천을 방문, 기능성 특수안전장갑 생산업체인 (주)신성메이저글러브(대표 강영춘)를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전남도가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육성사업도 소개했다.

전남 동부권은 신소재산업, 서부권은 관광레저 및 조선산업을, 광주 근교권은 미래생물·백신·나노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외에도 근본적인 물부족 해소를 위한 중수형 댐 건설,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파충류공원 조성 등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방문을 통해 나온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해 내년 예산사업 선정 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로 우주센터 로켓발사 왜 또 연기했나

2분기로 예정됐던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의 한국 최초 로켓(소형위성발사체 KSLV-1) 발사가 또 다시 1개월 연기됐다. 당초 2005년 발사 계획에서 2007년으로, 2008년 말로, 2009년 2분기로, 오는 7월말로 다섯번째 연기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발사대 시스템 성능시험 항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험 기간이 오래 걸려 늦출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공 발사를 위해 조금 늦어더라도 ‘최적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발사대 시험 항목 늘어 늦어져 불확실성 제거 7월 발사 가능

◇왜 늦춰졌나=KSLV-1의 발사 연기는 ‘나로우주센터의 발사대 시스템 완공 지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고흥 외나로도에 건설 중인 나로우주센터는 발사대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건물과 시설의 건설 공정은 마무리 됐다. 외형은 모두 갖춰졌다는 것이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서는 성능 시험이 진행 중이다. 특히 발사대 시스템은 우주센터 핵심 시설로 로켓의 최종 기능 점검 후 추진체 주입을 거쳐 발사가 이뤄지는 곳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려면 발사대 시스템에 대한 348개의 성능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이를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발사대 구실을 하게 된다.

다만 당초 99개였던 성능시험 항목이 290여 개로, 다시 348개로 늘어나면서 시험 완료 시점이 2월 말에서 한달 가량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발사 일정도 2분기(6월 말)에서 순연돼 7월 말로 연기됐다.

◇언제 발사 가능할까=지난해 9월 로켓 발사 시기가 2008년 12월에서 올해 2분기로 연기됐다. 중국 쓰촨성 지진 등으로 현지 도입 부품인 초저온·초고압 밸브 등의 조달이 지연되면서 발사대 시스템 완공이 늦어졌고 러시아측은 이를 발미로 실제 비행모델(FM·완성 발사체) 인수와 발사 시기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발사 시기를 2분기(3월~6월)로 발표했다. 발사 시점을 이처럼 넓게 잡은 것은 발사대 성능 시험의 불확실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과부는 “발사대 시스템의 성능 시험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시험 결과의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됐기 때문에 발사 시기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의 일정을 감안하면 7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사 성과가 달린 발사대 시스템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대 시스템의 완공을 3월말로 잡고 있다. 현재 항우연은 발사대 시스템 성능 시험은 모두 끝마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발사대시스템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4월부터 6월중순까지 2개월 반동안 발사체와 발사대의 연계 인증시험을 할 예정이다.

또 연계 시험 기간 중인 6월 초 러시아로부터 실제 비행모델을 인수할 계획이다. 발사체 조립과 성능 시험은 러시아로부터 작년 8월 들어온 지상검증용기체(GTV) 1단을 통해 이미 수행했기 때문에 실제 비행모델 인수부터 발사까지 약 2개월이면 충분히 7월 말이면 발사가 가능하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는 것이다.

◇또 연기 가능성은 없나=KSLV-1의 최종 발사일정은 발사 1개월 전 결정된다. 발사 시간대는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후 태양으로부터 충분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대를 감안, 오전 4시50분~8시30분, 오후 4시40분~6시30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발사일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KSLV-1 발사는 당일 기상과 안전 문제가 확보돼야 한다”며 “아무리 맑다 하더라도 정전기를 품은 구름이 없어야 하고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 공항 직항!!!

공항공주주장 무공이용
 매년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 문화탐방** 상품입니다(www.kimbc.com.kr)
'기쁨의 때까지 상용의 희석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749,000원 / 759,000원

중국東方航空 光州MBC 문화탐방 光州/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